

# 대청 일대의 포유류

신화용 · 허용곤  
(한국수달보호협회)

## 요약

대청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8~10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 1. 서론

대청(도엽번호: 374034)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김.배(2014)에 의해 수행된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대청(도엽번호: 374034)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해당 격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2 회 조사	3 차 조사
E1	-	-	-
E2	2019. 08. 31	-	2019. 10. 22
E3	2019. 08. 31	-	2019. 10. 22
E4	-	-	-
E5	-	-	2019. 10. 22-10. 23
E6	-	-	-
E7	-	-	-
E8	-	-	-
E9	-	2019. 10. 09-10.10	-



그림 1. 대청 일대의 도엽

### 3. 결 과

#### 3-1. 전체 포유류 현황

대청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5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2 가 4 종, E3 이 2 종, E5 가 2 종, E9 가 2 종이었다.

표 2. 대청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고양이	-	○	-	-	○	-	-	-	○
수달	-	○	-	-	-	-	-	-	-
염소	-	○	○	-	○	-	-	-	○
등줄쥐	-	-	○	-	-	-	-	-	-
집쥐	-	○	-	-	-	-	-	-	-
합계(5 종)	0 종	4 종	2 종	0 종	2 종	0 종	0 종	0 종	2 종

####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대청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2 종, 수계에서 1 종, 시가화에서 2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대청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고양이	-	-	-	○	-
수달	-	-	○	-	-
염소	○	-	-	-	-
등줄쥐	○	-	-	-	-
집쥐	-	-	-	○	-
합계(5 종)	2 종	0 종	1 종	2 종	0 종

표 4. 대청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사체	굴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염소	6	1				4		1
	등줄쥐	1						1	
수계(하천, 저수지, 해안)	수달	1	1						
시가화	고양이	3					3		
	집쥐	1					1		

##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대청 도엽에서 조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이 확인되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5).

표 5. 대청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출현, - :미출현)

격자	종명	수달	
E1		-	-
E2		○	B
E3		-	-
E4		-	-
E5		-	-
E6		-	-
E7		-	-
E8		-	-
E9		-	-

표 6.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종(수달, 담비, 산,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판단 기준표

종명	기호	내용
수달, 담비, 산, 하늘다람쥐 (공통)	A	반경 125m 이내에 사용하고 있는 보금자리가 발견되고 실체가 1 회 이상 확인됨
	B	반경 125m 이내에 동일종의 흔적(배설물, 발자국, 식흔, 털 등)이 2 곳 이상 다른 지점에서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C	반경 125m 이내에 서로 다른 종의 흔적이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1 급과 2 급이 확인된 경우, 1 급 서식지로 판단)
	D	반경 125m 이내에 실체가 2 회 이상 발견된 양호한 지역
	E	어린 새끼와 어미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서식 환경이 양호한 지역(번식 활동 지역)
수달	F	장기간에 걸쳐(최근 배설물 포함) 반복적으로 남겨진 수달 배설물 무더기(수달 화장실)가 발견된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수역(하천, 습지, 저수지, 해안) 경계부에서 양안 20m 이내
하늘다람쥐	H	실체가 1 회 이상 확인되거나, 최근의 배설물이 다수 확인되는 등 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4. 고 찰

대청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5 종이었다. 서식지 유형별로 생포트랩(sherman trap) 설치를 통해 포획된 소형포유류는 등줄쥐 1 종이었다.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1 종(염소)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내륙에서 200 km 정도 이격된 지역으로 포유류의 자연적인 유입은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된다.

중대형 포유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의 청문조사결과 사슴(엘크)을 키우다 탈출한 개체가 현재 산림에 서식한다고 하여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대청은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지역에서 조사시 제한은 있었으며, 해안 주변의 산림지역에서 소형포유류 포획틀(샤먼트랩)에서 등줄쥐가 포획되어 서식이 확인되었다.

현지조사시 대청도 북측 해안 바위에서 수달 배설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7 년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대청도 일대에서 확인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7 년에 첫 기록 후 2019 년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대청도 일대에서 서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청도의 경우 북한의 장산곶과 20 k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수달의 이동도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내륙에서 이동한 것보다 북쪽에서 이동한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지역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해안모래 사구가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종합 및 제언

대청도의 경우 산림에 염소를 방목하여 사육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위적인 간섭에 따른 위협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주변지역에서 펜션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달의 경우 2017 년, 2019 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서 서식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립생태원. 2019. 제 5 차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국립생태원.  
원병휘, 1967. 한국동식물포유류도감. 제 7 권 동물편(포유류). 삼화출판사.  
윤명희, 한상훈, 오홍식, 김장근. 2004. 한국의 포유동물. 동방미디어.  
환경부. 2014.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대청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부록 1] 사진대지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사진 3. 조사지역 전경	사진 4. 조사지역 전경
	
사진 5. 수달 배설물	사진 6. 염소